

다민족연합기도대회 앞두고 조찬기도회 열려

다민족연합기도대회 10월 1일 오후 4시 은혜한인교회서

다민족연합기도대회가 오는 10월 1일 오후 4시에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를 위한 조찬기도회가 8일 오전 8시에 열렸다.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 조찬기도회에는 미주 한인 목회자를 비롯해 남가주의 다민족 기독교 지도자들 130여 명이 참석해 미국의 영성 회복과 이번 대회를 위해 합심해 기도했다.

주최 측은 “청교도들이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졌던 미국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제도를 버렸고, 공립학교와 대학교육은 자녀들의 영혼들을 빼앗고 있으며, 교회들마저 세상의 풍조와 타협하고 있다”며 “이 땅에 사는 모든 다민족이 함께 모여 역대 하 7장 14절의 약속을 붙잡고 눈물로 회개하

며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고, 속히 부흥을 보내셔서 나라를 고쳐주시도록 간구하자”고 도전했다.

이번 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은 중보기도 리더들 간의 결속과 미국의 부흥을 위한 기도운동 공동 방향을 잡았다.

환영사를 전한 기도대회 대표 대회장 한기홍 목사는 “사회 각 분야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대적하고 있는 미국이 다시 회복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10월 1일에 있을 기도대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미국이 하나님께 돌아서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자”고 주문했다.

설교한 데이빗 디아즈 목사(뉴비기닝교회는)는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도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했다.

격려 메시지를 전한 레오 푸엔테스(엘림교회) 목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



다민족연합기도대회를 위한 조찬기도회가 8일 오전 8시에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렸다. ©기독교일보

려놓고 기도하면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 상달될 것”이라면서 “주기도문과 같이 하늘에서 이뤄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뤄질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자”고 했다.

이날 진행된 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은 미국

의 법과 교육, 캘리포니아의 각 도시들, 박해받는 성도들, 기도사역의 축복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다. 모든 순서는 송정명 목사(성시화운동 공동대표)의 축도로 마쳤다.

토마스 멩 기자

제10차 한인세계선교대회, 남가주사랑의교회서 내년에 열린다

조용중 사무총장, “선교사 파송 이후 36년 지나, 선교사 현황 파악 시급”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선교운동 확산’ ‘미주한인교회선교화성화’·‘전문영역 소개’·‘네트워크 구축’ 목표로

제10차 한인세계선교대회가 2024년 7월 8일부터 11일까지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를 위한 설명회가 7일 오후 12시에 LA 시내 한 식당에서 열렸다.

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가 개최하는 이 대회는 1988년 처음 시작된 이래 늘 시카고 휘튼대학교에서 개최됐으나 남가주에서는 지난 2016년 아주사퍼시픽대학교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게 됐다. 통상 4년마다 개최해 오던 대회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지난해 6년 만에 열렸고, 앞으로 2년마다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열 것이라고 주최 측은 밝혔다.

이번 선교대회는 팬데믹 이후의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선교운동의 확산, 남가주지역을 중심으로 미주 한인교회의 선교 활성



제10차 한인세계선교대회를 위한 설명회가 7일 LA 시내 한 식당에서 열렸다. KWMC 조용중 사무총장(우)과 이명철 사무국장(좌). ©기독교일보

포라 한인교회 선교운동의 확산, 남가주지역을 중심으로 미주 한인교회의 선교 활성

또한 700여 명의 선교사 및 목회자 자녀들이 대회에 참석할 예정이라서 선교사들과

화, 선교 전문 영역의 소개와 네트워크 구축 등의 목적으로 열린다. 등록비는 300불이다.

크게 두 트랙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낮에는 처음 선교를 나가는 이들을 위한 선교사들의 간증, 선교 기초 입문 과정 등의 모임이 있고, 이밖에 비즈니스 애즈미션(BasMission), 교육, 미디어, 병원 및 군대의 채플린 등 각 영역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다.

일반 성도들의 관계를 형성하고자 교회에 가능한 많은 홈스테이 참여를 부탁한다고 주최 측은 밝혔다.

KWMC 사무총장 조용중 사무총장은 “미주 한인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시작한 지 36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선교사 파송 현황을 파악하지 못해서 이번 대회를 맞아 그 현황을 조사하고자 한다”며 “각 교회에서 교단 및 선교단체에서 파송한 선교사 현황 조사에 협조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조 사무총장은 “미주에서 파송한 선교사들 가운데 이미 선교지에서나 귀국해 소천한 선교사들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공로를 인정하고자 한다”며 “각 교회에서나 교단, 선교단체에서 도와주셔서 대회 기간 중 선교사 유가족들을 초청해 공로를 인정하고 미주한인교회의 선교역사를 이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 주제는 “예수, 구원의 그 이름!”(Jesus No Other Name!(행 4:12))로 정했다.

김동욱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링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경연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 213,820,3704

2023년 **태양광, 솔라!!**
 2023년 IRA법 혜택 / 30% Tax Credit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미국시장 1위 패널 사용 (25년 워런티)
 ◎설치비 없고, Zero Down (1년 뒤 부터 Payment)
 ◎전기로 70-80%절감 (전기차 사용도 무료)
BTS SOLAR DESIGN 213.500.8000

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품는
다음세대 신앙계승 프로젝트 설명회 및 스마트 미디어 세미나
 참가신청 마감일 9월 29일(금) 40명 선착순 마감
 2023. 10. 2. (Mon) 10:00am~4:00pm
 Double Tree Hilton Buena Park / Sierra 세미나실
 (7000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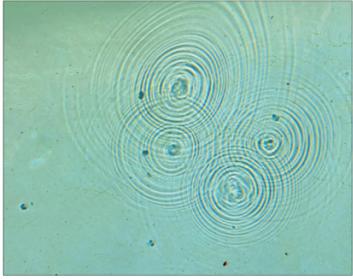
대상: 다음세대 사역에 관심있는 담임 목회자, 예배 담당 교역자
 등록기간: 9.11(월) - 29(금) 40명 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및 문의: nci@gm.edu (한철주 목사)
 특전: 점심식사 제공, GMU기념품 증정, 미디어 기자재 증정
 참가비: 무료

● 프로그램

시간	내용	상세내용
9:30 - 10:00	접수	
10:00 - 11:00	개회	프로젝트 설명회, Q&A (주제: 다음세대를 품는 예배)
11:00 - 12:00	모임	그룹 인터뷰
12:00 - 13:00	식사	
13:00 - 14:30	강연1	셀폰을 이용한 촬영법 (강사: 박봉성 PD / 전 CTS America 제작국장)
14:30 - 16:00	강연2	셀폰을 이용한 편집법 (강사: 이윤희 PD / 전 CTS PD)

GMU 그레이스미션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디카시인협회 | 금주의 시



물방개

동글 동글 동그리들이 예쁘세요
 이것은 놀다가 만들어진 게 아닌데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친 결과
 옆에 죽어있는 친구들
 뭐야 그게 그런 거야
 미안 미안 너무 미안하다
 그런 줄도 모르고
 아버지여 이 잔을
 옮기실 수 있거든 옮겨주세요
 기도하는 아드님 모습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글사진: 최순길-

단신

- ◆ 9월 16일(토) 오후 5시 인랜드교회에서는 찬양사역자 김인식 목사(야곱의 축복)가 강사로 나서 힐링 콘서트를 개최한다.
- ◆ 씨드선교회가 주최하는 엔데믹 목회 드로잉 세미나(강사 송동호 목사)가 9월 18일(월) ANC온누리교회(담임 김태형 목사)에서, 21일(목)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에서 열린다.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이다.
- ◆ 9월 24일(주일) 오후 7시 월드미션대학교에서는 기념관 개관식이 열린다.
- ◆ 9월 29(금)부터 10월 1(주일)까지 밀알의 밤이 개최된다. 벨리지역: 9월 29일(금) 오후 7시 30분 ANC온누리교회, LA지역: 9월 30일(토) 오후 7시 주님의영광교회, OC지역: 10월 1일(주일) 오후 7시 감사한인교회

LA기쁨의교회 14주년 감사예배, “하나님 말씀 귀히 여기자”

LA기쁨의교회(이희문 목사)가 설립 14주년 감사예배를 10일(주일) 오전 10시 30분에 드렸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데살로니가 전서 1:4-10)의 제목으로 설교를 한 이희문牧사는 “말씀을 귀히 여기는 교회, 믿음이 소문난 교회, 그리하여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자”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하나님께서 말씀은 귀히 여기는 교회를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같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라며 “하나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최고 가치로 두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자녀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서 말씀을 따라오는 삶을 살게 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대학에 붙어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이 목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믿음이 소문난 교회가 되어야 한다. 성경을 공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것”이라며 “교회를 통해 복음의 메시지가 남가



LA기쁨의교회가 설립 14주년 감사예배를 10일 오전 10시 30분에 드렸다. ©기독교일보

주와 북가주, 더 나아가 북미주와 세계에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하자”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희문 목사는 “또한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였다”면서 “우리 모두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고 각자의 삶에서 잘 준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들이 되자. LA기쁨의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말했다.

2009년 9월 6일에 LA 한인타운에 LA기쁨의교회는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평신도를 제자삼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다. 올해 교회 표어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이다. 토마스 멩 기자

기독교커뮤니티센터, 한인사회와 더불어 성장할 것



한인타운 기독교 커뮤니티센터가 11일 제이제이그랜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KEC 제공

한인타운 기독교 커뮤니티센터(KEC: Koreatown Empowerment Center) 회장 박창형 목사가 11일 JJ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기관 설립 취지와 활동 방향

을 설명했다. 이 단체는 ‘주는 사랑체 교회’의 지역 선교차원에서 시작된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후속기관으로 이민사회 한인들에게 소셜 서비스, 교육, 상담, 권리 옹호 등 다양

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창형 목사는 “새로운 이사진과 임원들을 재정비하고 한인커뮤니티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가서 섬기겠다. 한인 서류 미비자들을 비롯해 한인 시니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한 유익한 자료와 최신 정보들을 잘 준비하여 한인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비영리단체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박창형 목사는 칼스테이트 주립대학(cal state university LA)에서 사회학과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해 교계는 물론 한인커뮤니티의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며 1.5세 영어권으로 한국어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해 이민자들과 한인 공동체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김민선 기자 문의: 213-739-7879, https://ktecla.org/

오픈뱅크 한국은행 최초 네바다주 진출

한인은행 최초로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지역에 진출한 오픈뱅크(행장 민 김)가 1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오픈뱅크 스프링마운틴 지점(지점장 줄리 김) 그랜드 오픈 행사가 열고 새로운 도전을 알렸다. 라스베이거스의 아시안 상권의 중심지역에 자리를 잡은 오픈뱅크의 스프링마운틴 지점은 한인은행 중에서 이 지역에 문을 연 최초의 지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라스베이거스지역은 한인 인구가 꾸준히 상승해온 지역으로 최근에는 한인 비즈니스들도 크게 성장하고 있는 곳으로 오픈뱅크는 이지역 한인들에게 보다 편리하며 한층

고급화된 품격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수익의 10%를 사회환원에 사용하고 있는 오픈뱅크는 이제 네바다주에서도 은행의 기부문화를 이어감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오픈뱅크의 민 김 행장은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이거스지역에 진출하게 된 것은 한인은행계의 역량이 그만큼 더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이 지역 한인들에게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선 기자



오픈뱅크가 9월 1일 네바다주 스프링마운틴 지점을 개점하고 그랜드 오픈 행사를 개최했다.

2023 한인교회 발달장애 컨퍼런스

차세대 장애사역 리더 양성

10월 20-21일 (FRI-SAT)

ANC 온누리교회 10000 FOOTHILL BLVD, LAKE VIEW TERRACE, CA 91342



29년차 장애사역 전문가가 답한다!

PRE-CONFERENCE (10/20 2PM)

DISABILITY 101 새로운 접근 방법: 포용적 장애 사역

JENNI VON TOBEL (WILLOW CREEK CHURCH, CHICAGO)

MADE TO BELONG

KEYNOTE SPEAKER



KAY WARREN CO-FOUNDER SADDLEBACK CHURCH

DR. ERIK W. CARTER LUTHER SWEET ENDOWED CHAIR IN DISABILITIES AT BAYLOR UNIVERSITY



RICK MCLEAN PASTOR IN SPECIAL MINISTRIES AND ADULT MINISTRIES AT GRACE COMMUNITY CHURCH



DR. CHRISTINA KIMM PROFESSOR IN THE DIVISION OF SPECIAL EDUCATION AND COUNSELING AT CAL STATE LA



JENNI VON TOBEL DIRECTOR OF DISABILITY & INCLUSION MINISTRIES AT WILLOW CREEK COMMUNITY CHURCH



*이 외, 한인교회 장애사역 전문가 11인

REGISTER NOW

9월 30일 까지

714-484-1190

K-CHURCHCONFERENCE.ORG



SPECIAL OFFER

대학/대학원생/신학생은 20% 추가 할인

한/영 동시통역 제공

KPCA 서중노회 여선교회 연합회 창립 22주년 기념예배 & 찬양의 밤

오충성 목사, “찬양은 영적 전쟁 승리케 하는 무기”, 9개 교회 참가



해외한인장로회(KPCA) 서중노회 여선교회 연합회 창립 22주년 기념예배 & 찬양의 밤이 10일 오후 5시에 남가주동신교회에서 열렸다. © 기독일보

해외한인장로회(KPCA) 서중노회 여선교회 연합회 창립 22주년 기념예배 & 찬양의 밤이 10일 오후 5시에 남가주동신교회(백정우 목사)에서 열렸다.

1부 예배에서 서중노회 회장 오충성 목사(하늘기쁨의교회)가 설교했다. 오 목사는 “시편 149:6절 말씀에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고 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다 보면 영적인 싸움이 생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의 입에 찬양을 주셨다”면서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과 동시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하는 무기이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찬양을 할 때라 생각한다. 오

늘 모임을 통해서 성도가, 가정, 교회가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격려사를 한 백정우 목사(남가주동신교회)는 “이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여 함께 참여하는 모든 교회와 모든 여선교회 회원

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한다. 이번 찬양을 통해 슬픔과 낙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하늘의 기쁨이 주어지고, 근심의 깊은 함몰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다.

2부 찬양의 밤 순서에서는 유준 장로(LW한인커뮤니티교회), 남가주농인교회, 리버사이드한우리교회, 홀러튼장로교회 남성중창단, 선한정자기교회, 팔로마한인교회 중창단, 레위성가단, LW한인커뮤니티교회, 홀러튼장로교회, 남가주동신교회가 참여했다. 이날 미주장신대, OM선교회, 기드온동족선교회가 선교비 전달을 받기도 했다.

KPCA 전국 여선교회 연합회는 1987년 뉴저지의 한인 장로교회에서 동노회, 서노회, 중앙노회의 세 연합회가 모여 창립했고, 현재 12개 노회가 여선교회 연합회에 참여해 활동중이다. 토마스 맹 기자

기독일보 이전 감사예배, “성령의 불이 떨어짐을 믿고 나아가길”



9월 12일(화) 오전 10시 30분에 본지 사무실 이전 감사예배를 드리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 기독일보

미주 기독일보가 사무실 이전 감사예배를 12일 오전 10시 30분에 임직원과 교계 인사들을 초청한 가운데 드렸다.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르는 곳’(역대상 21:24-30)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한 민중기 목사(재미한인기독교재단 이사장)는 “기독일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와서 이전 감사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헌신과 봉사가 있어서이다. 임직원 여러분이 그러했고, 지역 목회자들과 여러 성도들의 도움이 있었다. 이 헌신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받아주시는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여러분 사역의 땀과 눈물이 밑거름이 되어 신문에 하나님의 눈길이 계속해서 머물기를 바란다. 영상이라는 것은 없어지지만 글은 남기에 하나님께서 이 단순하고 기본적인 통로로 메시지를 전하기 원하신다”고 했다.

민 목사는 “아브라함이 그의 신앙이 장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다. 아브라함은 묵묵히 짐을 싸서 떠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 하는데 이를 하나님이 막으시고 여호와와 이레로 준비하셨다”라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 아들을 보내셨는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다. 이후에 솔로몬이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섬김 가운데 함께 하신다. 성령의 불이 떨어짐을 믿고 살아있는 일꾼들을 살리고 평신도를 훈련하는 일에 진력해서 기독일보 사역의 불이 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다”고 했다.

축사를 한 폴 킴 목사(에바다선교회 대표)는 “이전에는 나의 열심으로 살아왔었는데,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훗날 주님 앞에 설 때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왔냐고 물었을 때 부끄러운 삶을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문서선교가 힘든데 욕심내지 않고 하는 것을 지켜

보면서 끝까지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특히 워브릿지 사역을 지켜보면서 귀한 사역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를 도왔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 기독일보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한다”고 했다.

이어 축사를 한 임성진 총장(월드미션대학교)은 “이인규 대표에게 ‘어떤 사역이 가장 보람되었냐’고 물었더니 워브릿지 사역을 꼽았다. 작은 교회를 돕는 사역을 언론사가 잘 안 하는데,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하는 모습을 보면서 특별하고 귀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앞으로는 차세대 리더를 키우는 사역을 하고 싶다는 것을 보면서, 교회에서 문서선교를 하고 싶어도 전문인력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때 기독일보가 앞서는 언론기관이라는 생각을 했다. 이제 그것을 넘어서 영어권으로 브릿지 역할을 하는 기관이 되기를 기도하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꿈을 이뤄주시는 것”이라고 했다.

광고시간에 이인규 대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좋은 곳으로 오게 됐다. 워브릿지 사역을 하면서 50개의 작은 교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회를 다녔었는데, 지난 1월 창간 예배 때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었다”면서 “지난해 9월 1회 컨퍼런스에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모시고 전도와 목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모임을 가졌다. 모임을 통해서 팬데믹 이후에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고 인간의 힘으로 했던 모든 노력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고 했다.

이후 이 대표는 올해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있을 제2회 워브릿지 컨퍼런스와 본사 주관으로 열리는 성경필사 캠페인 등에 대해 소개했다. 예배는 김종용 목사(나눔과섬김의교회) 축도로 마쳤다. 토마스 맹 기자

제8회 남가주 설교 페스티벌 10월 7일 미주평안교회서



지난 해 감사한인교회에서 개최된 남가주 신학대학교 연합 설교 페스티벌. © 기독일보

미주성서화운동본부(공동대표: 송정명 목사, 진유철목사)는 앞으로 이민교회 강단을 책임질 신학생들에게 설교의 장을 열어 주고 설교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제 8회 남가주 한인 신학대학교 설교 페스티벌을 10월 7일(토) 오전 9시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성진 목사)에서 진행한다.

지난 4월 18일(화) 미주성서화운동본부는 각 신학대학 총장들과 담당교수들의 모임을 통해 이번 주제를 “복음으로 돌아가자”로 확정했으며, 남가주 지역에서 연방정부의 인가를 취득한 13개 신학대학들 중 8개 대학이 참가를 신청했다.

참가할 신학대학에서 추천한 교수들과 청중 평가단의 심사를 통해 당일 우수한 성적을 얻은 학생들에게는 설교 우수상(\$2,000), 모범상(\$1,700), 주해상(\$1,500), 전달상(\$1,300), 기타 4명(\$600/인)에게 장학금과 상장이 수여되고, 우수상을 수상한 학교에는 트로피가 증정된다.

우수상 수상자의 설교는 미주음방송을 통해 방송된다. 당일 대회에 참석한 자들에게 점심식사와 간단한 선물이 제공된다.

문의: holycityusa@yahoo.com, 213-663-2228(사무국장 박인호 목사)

김동욱 기자

가을 스페셜

NEW 2023 HYUNDAI IONIQ 5 SE

0.99%

APR Financing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가능
48개월까지 할부 가능

Special Lease Program available Up to 48 Months

NEW 2023 HYUNDAI Ioniq 6 SE

NEW 2023 HYUNDAI TUCSON SE

NEW 2023 HYUNDAI SantaFe SE

Lease Special

2023 **IONIQ 5 SEL**

\$299

/MO + TAX

10,000 mile/year For 24 Months
\$6,995 due at lease signing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1-888-644-7114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사모님들, 수많은 일 겪으시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OC기독교교회협의회, 목사회, 장로연합회 등은 9월 10일 주일 저녁 5시, 남가주사랑의교회 체육관에서 '3060사모 블레스 나이트'를 열고 목회자 사모들을 위로하고, 사명을 재발견하게 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재만 목사(OC교협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1부 '경배와 찬양'은 남가주사랑의교회 세키나 찬양팀의 찬양에 이어, 김용진 장로(OC 장로협의회회장)가 대표기도를 드렸다. 이어서 한기홍 목사(OC교협증경회장)는 영상으로 준비한 환영사에서, "내년에는 사모세미나를 통해 사모들을 섬길 기회를 갖길 바란다"며, "많은 단체들이 연합해 사모들을 섬기고 있다"며 감사를 전했다.

남가주장로성가중창단(단장 노길수 장로)의 특별찬양 후, 노창수 목사(남가주사랑의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심>(롬8:26-28)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몸 바쳐 충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왔다. 워싱턴중앙장로교회에서 원로 목사가 은퇴를 하시면서 몇 가지 큰 일을 해야 했다. 교회 사역에 일어난 수많은 어려움 일들의 일차적인 책임은 저였다.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목회자의 고충을 이야기했다.

"누군가가 나에 대해 인신공격할 때, 목사가 할 수 있고 사모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러다 보니까 속으로 삭혀야 하는데, 삭혀지지 않으니 몸으로 온다. 저는 오랫동안 위궤양으로 고생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일차적인 책임은 저였다."

그러면서 아무도 알아 주지 않아도 단 두 사람이 그 진실을 안다고 말한다.

"하루는 새벽기도에서 기도를 하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재판을 받으면서 왜 침묵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수님은 불의의 재판을 당하시면서, 역을 당할 일을 당하시면서도 침묵하셨다. 그때 깨달은 게 두가지가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두 사람이 나를 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 아내는 나를 안다"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나올 때, 제가 수십번 했던 기도가, 새벽 제단에 나와서, '보잘 것 없는 제 손 좀 잡아주세요'였다. 사모님들이 사역하다가 수많은 일을 겪는다. 그때 그때 마다,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 손 좀 잡아 주세요. 제 남편 손 좀 잡아 주세요.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자녀 손 좀 잡아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합력'(롬 8:28)이라는 단어는 그림언어이다. 어떤 그림 언어냐면, 우리말로는 수를 놓는다는 뜻이다. 여러 색의 실로 수를 놓는다. 뒤면을 보면, 이 실 저 실이 어수선하다.



9월 10일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3060 사모 블레스 나이트'가 개최됐다. ©Youtube screen shot

'도대체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무슨 그림이지', 뒷면만 보면 이게 안 보인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앞면을 보여주신다.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나는 지 이해가 안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수를 다 놓고 나서 완성품이 나오면, 이 그림이구나 나를 깨닫는다."

이어서 그는 믿지 않는 아버지를 위해 수십년을 기도했지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나눴다. 나중에는 "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시면 목회를 그만둔다"고 하나님께 진검승부를 던졌음에도, 응답되지 않았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목

사'라는 체면이 우선이었기 때문이라며, 하나님이 오히려, "전도하지 말고, 아버지를 그냥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며, "그 영혼을 사랑해서 접근하고, 그 사랑의 결과로 열매가 맺어진다"고 말했다.

1부 순서는 임성필 목사(얼바인중앙교회)의 <주 앞에>찬양, 배기호 장로(OC 장로협의회 이사장)의 식사기도로 마쳤다.

윤우경(사람과 사회 발행인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2부 위로의 순서에는 박갑수 목사, OC장로협회, 조영석 목사의 찬양에 이어 이영숙 박사(좋은나무성품학교대표)가 <사모의 정체성>에 관한 강연을 이끌었고, 친교 및 게임이 진행됐다. 주디 한 기자

“우리의 아버지를 돌아보는 시간... 회복의 시작은 용서로부터”



제16기 아버지학교가 9월 10일(주일) 오후 5시에 부에나파에 위치한 갓즈패밀리교회(담임 유대호 목사)에서 개최되었다. 첫날 강사로 선 박세헌 목사가 <아버지의 영향력>에 대해 강의했다. © 기독교일보

"이렇게 수업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밤, 운전 중에 불현듯 '내가 내 아이들에게 폭언보다 더 무서운 무관심으로 대했다'는 생각과 '사랑을 주지 못하고 살았다'는 생각이 불현듯 나면서 내 아내에게, 폭언했던 지난 날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했던 행동을 똑같이 해서, 내가 받았던 상처를 아내에게, 내 아이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난 9월 10일 오후 5시 부에나파에 위치한 갓즈패밀리교회(담임 유대호 목사)에서 열린 16기 아버지학교에서, 15기 아버지학교 참석자가 간증을 전했다. 첫째날 전반부 강의 시간에는 2005년 아버지 학교 2기를 수료한 박세헌 목사(예수교회 담임)가 강사로 <아버지의 영향력>에 대해 강의했

다. 그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봤던 것이 진리였던가, 다시 비춰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라며, 자신을 목회자, 사역자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아버지로서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지나간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또 이야기하셨다. 인생의 마지막을 맞는 순간, 병상에 누워 수술을 받으시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옆 방에서 총소리가 들린다'고 하셨다. '또 6.25를 경험하고 계시구나'라고 생각했다. 그 당시에도,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 사라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다."

박 목사는 "나눔을 통해서 나의 아픔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위로가 되기도 한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것

은 내가 능력 있고 잘 나고 야심도 있고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아픔 속에 체험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회복의 시작은 용서로부터 온다. 우리의 아버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지나간 일인데 ...'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 있다. 나도 모르게 나를 찢러대고, 내가 또 고슴도치가 되어서 내 아내를 사랑하는 자녀를 찢러대는 일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학교를, 일 년 중 2월에 단 2주 하루 10분 동안만 펼쳐지는 요세미티의 호스테일에 비유했다.

"공기가 차갑고 공기의 입자들이 얼어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햇빛에 비치면서 무지개처럼 나타났다. 같은 곳인데 어떤 앵글로 빛이 비치느냐에 따라서 다른 모습이 된다. 요세미티는 세계적 명소지만, 그 중에서도 2월 중순이 되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있다. 해가 지면서 석양이

폭포에 비쳐, 말꼬리처럼 보여서 '호스테일(Horsetail)'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일 년에 딱 그 시간에만, 붉은 말꼬리처럼 보인다. '내 마음을 처음 짝 보았는데, 인생에 잊지 못할 순간이 되었다.' 저는 아버지학교 사역이 그런 것이라 생각한다."

이어서 박세헌 목사는, "일 세대의 아버지의 악한 영향은 적어도 그 자손 삼사대에까지 영향을 끼친다(신 5:9-10)"며 아버지의 부재가 자녀의 범죄율의 증가나 사회적 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아버지의 영향력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첫날 전반부 강의를 마치며, 박세헌 목사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가 7%. 그런데 목소리나 톤으로 '나를 경멸하나, '속에 반감을 갖고 있나' 전해지는 게 38 퍼센트. 그리고 나머지가 바디랭귀지. '내가 당신의 설교가 맘에 안든다.' 그러면 몸에서 반응이 나온다.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내가 가까운 분들에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했는가 돌아보게 될 것이다."

주디 한 기자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2024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장학생 모집

밀알선교단에서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장애인 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정진하고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4년에도 다음과 같이 밀알 장애인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 수여대상

- 밀알장학생: 00명 (대학 또는 대학원을 full-time으로 재학중인 장애인)
- 꿈나무장학생: 00명 (사랑의교실 참가자 또는 배움의 기회와 학업의 격려가 필요한 장애인)
- 근로복지생: 0명 (미주 각 지역 밀알선교단에서 봉사하는 장애인)

■ 제출서류

- 완성되지 않은 신청서와 부족한 서류는 심사대상에서 엄격히 제외됩니다.
- 기존 장학생들도 반드시 동일하게 서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금 신청서는 남가주밀알선교단 홈페이지 (www.milalsca.org)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102명의 장애인 장학생들에게 \$128,000의 밀알장학복지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장학복지기금이 출범한 2001년부터 2023년도까지 지급된 누적 총 금액은 \$2,876,200입니다.

- 1. 밀알장학생**
 - 신청서 (남가주밀알선교단 소정양식)
 -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 본인 신앙 간증문 (최소 500단어)
 - 수입증명서 (예: 최근 세금환급(Tax Return), 최근 3개월 월급명세서(Pay stub), 고용주의 편지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경제적 도움을 받는 곳으로부터 편지 등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한가지)
 - 추천서 1매 (출석교회 담당사역자 또는 소속학교 담당 지도교수)
- 2. 꿈나무장학생**
 - 신청서 (남가주밀알선교단 소정양식)
 - 재학증명서
 -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신앙 간증문 (최소 500 단어)
 - 추천서 1매 (출석교회 담당사역자(사랑의교실 주임교사) 또는 소속학교 담당 지도교수)
- 3. 근로복지생**
 - 신청서 (남가주밀알선교단 소정양식)
 - 본인 신앙 간증문 (최소 500단어)
 - 수입증명서 (예: 최근 세금환급(Tax Return), 최근 3개월 월급명세서(Pay stub), 고용주의 편지(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경제적 도움을 받는 곳으로부터 편지 등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한가지)
 - 추천서 1매 (출석교회 담당사역자 또는 소속학교 담당 지도교수)

■ 장학금액

- 밀알장학생 & 근로복지생: 1인당 \$3,600.00 (매달 \$300 지급)
- 꿈나무장학생: 1인당 \$1,000.00 (일시 지급)

■ 신청마감
2023년 11월 30일(목)까지 우체국 직인이 찍힌 것에 한함 (Email 접수 가능)

■ 발표
2023년 12월 29일(금) 개별통보함

■ 수여식
2024년 1월 15일(월)



2013년 대한민국창조문화예술대상 "작품상"
2014년 대한민국창조문화예술대상 "대상" 인기상, 특별상 등 전 부문 석권
2015년 대한민국국회대상 "올해의 연극상"
15년간 전국 60여개 도시 1,800여회 공연 100만 관객 관람



센터메디컬그룹과 함께하는 명품연극 특별공연!



이 세상 모든 아들딸들의 참회록,

예술감독
임하리

작/연출
김용을

총괄
프로듀서
이광진

동치비

엄마, 아버지 애쓰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프로듀서
석송
대니 석
이진영
유한수
최순구
제너리

출연 김진태 김계선 이효운 안재완 안수현
관람권(Ticket) S석 \$80.00 A석 \$50.00

2023.10.27(금) 오후 6시 **월셔이벨극장**
Wilshire Ebell Theatre

센터메디컬그룹에서 시니어분들께 **티켓을 선물**해 드립니다!

신청 문의 : **(714) 800-3168** 전화

* 문의는 평일 오전 8:30 ~ 오후 17:30 동안 가능합니다.

“책임을 ‘아웃소싱’ 한 부모들, 성경적 세계관 계승 실패”

‘영적 챔피언 키우기...’ 출간한 美 조지 바나 박사 “오늘날 극소수의 부모들만 성경적 세계관 갖춰”

미국 애리조나기독교대학의 문화연구센터 연구 책임자인 조지 바나(George Barna) 박사가 최근 성경적 자녀 양육의 중요성과 방법을 다룬 책을 출간했다.

지난 9월 5일 출시된 바나 박사의 신간 ‘영적 챔피언 키우기: 자녀의 마음, 정신 및 영혼 양육(Raising Spiritual Champions: Nurturing Your Child’s Heart, Mind and Soul)’은 현재 아마존에서 가족 건강과 관련된 신간 도서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책은 애리조나기독교대학 문화연구센터와 가족연구위원회가 공동 수행한 7개의 독창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연구를 통해 ‘의도적·전략적으로 자녀들을 영적 챔피언으로 양성’하는 부모의 능력을 조사한 결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로서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고, 책임을 아웃소싱하는 추세에 휩쓸려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 부모들이 제대로 된 신앙 훈련을 받은 경험이 없고 자녀들에게 성경적 가치를 전달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는 곧 성경적 가치관의 쇠퇴로 이어진 것이다.

바나 박사는 “그들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최고의 경험을 통해 최고의 결과를 얻

기를 원하기에, 자녀의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그 일을 해낼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을 찾는다”고 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부모들은 한 발 물러서서 세계관 개발 과정을 전문가에게 맡겼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자신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공유할 수도, 공유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우리의 세계관은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을 알려주는 의사 결정 필터”라고 했다.

신명기 6장 1-9절, 잠언 2장 1-13절, 22장 6절, 23장 13절, 29장 17절, 고린도후서 12장 14절, 에베소서 6장 4절은 자녀의 영적 발달과 제자도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부모에게 있음을 알려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 따르면, 오늘날 자녀의 영적 성장에 투자한 부모는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그들 중 대부분은 성경적 세계관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성경적 세계관을 물려줄 능력이 없었다.

13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중 불과 2%만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반면, 94%는 ‘경쟁적이고 종종 상충되는 세계관의 혼합물’로 묘사되는 혼합주의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의 10대 부모 중 22%만이 거듭



© Unsplash/Guillaume de Germain

난 기독교인이며,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8%에 불과했다. 거듭난 기독교 부모의 58%가 “자녀의 영적 발달에 주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반면, 그들 중 23%는 교회에 그 일을 맡겼다.

바나 박사는 “대부분의 부모들, 심지어 거듭난 부모들도 자녀들의 삶의 영적인 요소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최소한 학교, 스포츠, 또는 관계성보다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오늘날 극소수의 부모들만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 결과 13세와 14세의 36%만이 “하나님이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우주의 창조자시라고 믿는 반면, 10대 이전의 어린이들은 1%만이 그러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나 박사는 “가장 어린 청소년의 대다수(61%)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신 동안 죄를 지었다고 믿거나, 죄를 지었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며 “심지어 45%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믿지 않는다. 그리고 압도적인 다수는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가 없다고 믿는다”고 했다.

그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성경적 세계관을 개발해 주고 싶다면, ‘먼저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마음과 영혼을 다해 섬기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세계관은 대체로 13세까지 형성되기 때문에, 부모들은 예수님께 생명을 다해 헌신하고 성경적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등 어린 시절 자녀를 훈육하는 데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배우 진태현·박시은 부부가 헌금을 하는 법

일상과 신앙 등을 주제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배우 진태현·박시은 부부가 이번에는 헌금에 대해 언급했다.

이들은 최근 ‘배우 진태현 박시은 부부의 텔레비전’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항상 어렵고 예민한 그 이름 주일 헌금”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박시은은 “오늘은 조금 예민한 주제”라며 헌금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진태현은 “헌금을 하는 대상이 중요하다. 헌금을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헌금 하는 대상을 사람이나 교회에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태도를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박시은은 “헌금은 그것이 어떻게 쓰이든 하나님께 드렸으면 어디다 썼는지 추궁할 필요가 없고 생색낼 필요도 없다”며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서,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라고 했다.

또 진태현은 “최초 고백, 충격 고백을 하나 하려 한다”며 결혼을 하며 큰 금액을 헌금한 일을 밝혔다. 진태현은 “시는 써하고 저하고 모아둔 큰 목돈이 있었다. 좋은 예식장을 선택하거나 신혼여행을 좋은 곳 갈 수 있는 돈이었다. 그런데 저희는 하나님



박시은·진태현 부부가 헌금하는 자세에 대해 전하고 있다. ©‘박시은 진태현 작은 테레비’ 유튜브 채널

께 마음을 드리고 싶었다. 이 큰 금액을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 고민해서 ‘성경적 없는 분들에게 나눠 줬으면 좋겠다’고 한 마디를 하면서 헌금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정말 그것을 위해 써주셔야. 그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 드리면 끝이다. 저희는 교회나 목사, 교역자에게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이라며 “헌금을 드린다고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고 했다.

박시은은 “십일조는 내가 번 것의 10분의 1이다. 사실 전체를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 중 10분의 1을 하나님께 가

장 귀한 것으로 돌려드리는 건데, 이걸 억지로 아까워하며 떼어 드리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다. 드리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정성이 중요하다.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고 했다.

진태현은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오천 원, 천 원이 귀했는데, 깨끗하게 다려서 성경책에 탁 넣어 드렸다. 그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린다는 것이고, 함부로 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시은은 “얼마가 됐든 정성과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돈

이 없는 분이 아니다. 부족한 분이 아니다”고 했다.

박시은은 “저희 어머니만 봐도, 아직도 깨끗하게 돈을 미리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러 가신다. 요즘은 그런 게 사라지고 있긴 하다. 카드 결제, 키오스크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안에서 드리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다.

진태현도 “편리성을 추구하다 보면 끝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킬 건 지키고 싶다. 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다. 저희는 예배당에 절대 슬리퍼를 신고 가지 않는다. 양말 신고 운동화 신고 깨끗하게 간다. 모자도 안 쓴다. 새벽 예배도 사위도 다 하고 간다. 하나님 만나러 갈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했다. 박시은은 “진태현 씨는 새벽 예배 가기 전에 티셔츠도 다 다린다”고 덧붙였다.

박시은은 “점점 편리성으로 바뀌어 가겠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는 잃어버리지 않길 바란다”고, 진태현도 “시대는 빠르게 변하지만, 우리 마음은 우리가 지키고 싶다”고 했다. 끝으로 진태현은 “헌금을 잘하거나 꼬박꼬박 한다고 해서 큰 복을 주실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려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냥 다 주시는 분”이라며 “항상 마음을 드리는 마음가짐으로 살아 가면 좋겠다”고 했다. 김신의 기자

100% UC대학 이상 합격 시켜온 퀄리티 그대로... 14년간 온라인 수업도 함께 해온 학교를 믿으세요!

NCA 사립학교

Now Enrolling IB PYP(K~5TH) • MYP(6TH~10TH) • DP(11TH~12TH)



COVID-19 시대의 교육 ▶▶ 집과 학교, 어디든 병행수업이 가능한 NCA 온라인 시스템!



- ▶▶ 졸업생 100% UC계열 대학에 합격
- ▶▶ 매일의 학업성취 데이터 확보, 학생별 맞춤교육
- ▶▶ 최대 1/3 수준의 저렴한 학비부담(타 사립학교 대비)
- ▶▶ LA 유일, 세계적 프로그램 IB* 실행(International Baccalaureate) 및 졸업증 수여자격 보유
- ▶▶ 12학년 평균 SAT 1,390점의 우수한 성적
- ▶▶ 11:1 학생 교사 비율로 효율적 온라인 교육
- ▶▶ 기독교 바탕의 실력, 인성을 겸비한 인재교육

*IB 프로그램이란? 전 세계 약 4,000개 학교가 참여하는 국제인증 학위제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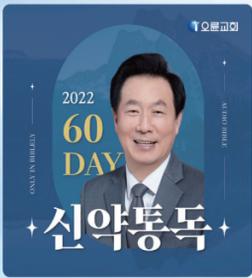
Biblely

미리 준비하는 2024년, 성경 통독으로 하나되는 공동체

세계 최고 수준의 시 오디오 성경

“단 30분의 녹음으로, 담임목사님의 오디오 성경을 만들어 보세요”

60DAY 신약통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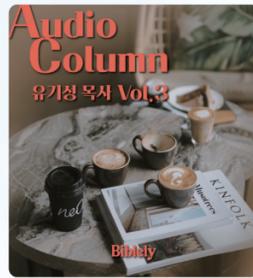


김은호
2022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며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십니다
김은호 목사와 함께 60일 신약듣기

담임목사님 음성으로 통독하기

오디오 성경을 제작하시면
교회별 맞춤 성경통독, 성경듣기표
더욱 쉽고 효율적으로
전교인 통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칼럼 Vol.3



유기성
이 앨범은 유기성 목사님의 칼럼 중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글들을 모아
보이셀라의 시 음성합성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단 한번의 녹음으로 QT, 칼럼, 오디오북까지

목사님의 음성 모델이 만들어지면,
오디오 성경뿐 아니라
목사님과 전 교인을 위한 QT, 칼럼,
오디오북까지 쉽게 제작할 수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의 호응 속에
성경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00일 성경통독
선한목자교회



90일 성경통독
온누리교회



100일 신약통독
중앙성결교회



공동체 성경 읽기
지구촌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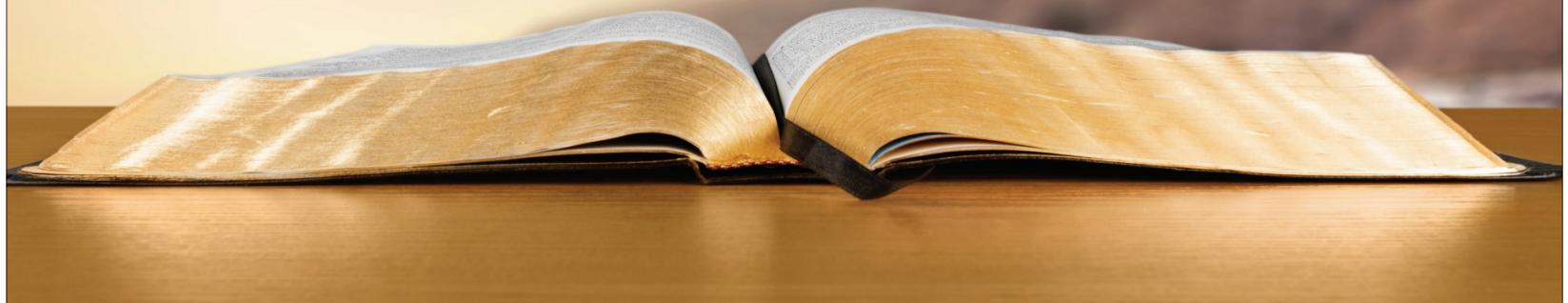
바이블리 '시 오디오 성경'은
친근한 목회자 및 가족의 음성으로
성경을 들을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시 오디오 성경입니다.

지금까지 온누리교회
하용조, 이재훈 목사님과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 등

많은 목회자분들이 성경 읽기 및
말씀 전파라는 비전을 공유하며
바이블리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기독일보

www.chdaily.com
T : (213)739-0403 chdaily@gmail.com
3055 Wilshire Blvd. Suite 480, LA, CA 90010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동부 지역, 글렌데일, LA북부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김성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213) 674-7966, (213)245-6616

김기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새벽예배) 오전 9:15(새벽예배) 월요일(가) 오전 6시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토) - 현정성예배
대학원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2세를 섬김하며, 이민가정을 치유하여, 선교영광을 증진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den 고지)
T.(213)386-2233

씨니김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 월-토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323)833-9090

김지훈 담임목사
주일 1부 전통예배 오전 7:30 토요일기도회 오전 6:00
주일 2부 찬양예배 오전 9:00 아름다운(AM) 주일 오후 2:30
주일 3부 영성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학교 오전 9:30
수요 오전 중보기도회 오전 9:30 영유아부,유아부,초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cofice1@gmail.com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예배 오전 6:20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323) 735-6412 / gmcchurch.com

진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기에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323) 913-4499 / F.(323) 913-4494

박은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323) 227-1400 web@youngnak.com

고광선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학교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초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일예배 오전 6:00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성령 새음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562)674-3016, cell.(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우영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초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토)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909)590-3722 www.eastsarang.org

강지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새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신과 진노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323) 702-6709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626) 810-3455 / F.(626) 964-5559

안 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말씀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inlandchurch.org

서사라 담임목사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실과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방송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213) 618-0614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신승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티노 오후 6:30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이 사랑하시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213) 749-4500 / F.(213) 749-6700

이명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천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323) 667-9920

곽부환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이순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성경공부 오후 7:3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366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양양기도회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EM성경강론 오후 7:00(금)
유초등부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마침막) 오후 8:00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909) 595-3110 hnsa@hnsa.org

김지성 담임목사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1부 07:30AM -1부 09:00AM -평일(월-금) 05:00AM
-2부 09:15AM -2부 11:00AM -토요일(토) 06:00AM
-3부 11:00AM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909)396-4441 www.gwgm.org

안정섭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 고등 대학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밸리연합감리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818) 366-0089 / www.vkum.com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9: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12:30 오전 10:15, 오후 12:40
EM 오전 11:15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사랑부 오전 8: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니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818)662-0400 www.joyfulccc.org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부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818)882-9191 F.(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美 캘리포니아, 기독교 방과 후 프로그램 금지 논란



©토마스 모어 소사이어티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교육구가 지역 학교 시설 내 방과 후 기독교 프로그램을 부당하게 금지해 비판이 일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기독교 법률단체인 리버티카운슬(Liberty Counsel)은 “캘리포니아 헤이워드 통합 교육구가 페어뷰초등학교 학생들이 ‘굿뉴스클럽’(Good News Club)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막고 있다. 교육구는 기독교 프로그램 승인 요청을 여러 번 거절해 왔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미국 어린이전도협회(CEF)가 이끄는 굿뉴스클럽은 방과 후 모임을 통해 학습·영적 성장 및 타인에 대한 봉사는 물론 사회적·정서적 성격 및 리더십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종교 및 기타 교육 활동을 제공한다. CEF에 따르면, 2018년 기준 5,000개 내외의 공립학교에서 진행된 굿뉴스클럽에 약 164,000명의 학생들이 참석했다. 이 단체는 제이슨 레이먼(Jason Reimann) 헤이워드 교육감에게 서한을 보내 “코로나19 이전에는 해당 초등학교에서 수년간 방과 후 기독교 프로그램이 진행됐다”며 “학교 측은 현재 걸스카우트 등 여러 방과 후 프로그램을 허용하고 있다. 굿뉴스클럽의 시설 사용 요청을 즉시 승인하라”고 촉구했다. 리버티카운슬의 회장 겸 설립자 매트

스타버(Mat Starver)도 성명을 통해 “학교 클럽의 모임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에 따르면, 굿뉴스클럽은 공립학교에서 비종교 단체들과 동등한 접근권을 가져야 한다”며 “이는 교내 시설 이용, 수수료 면제, 프로그램 시간, 공지사항 등을 포함한 평등한 대우를 의미한다. 우리는 기독교 단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이워드 교육구 대변인은 CP와의 인터뷰에서 “당국이 이 문제를 조사 중이며, 현재로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2001년 6월 미국 대법원은 굿뉴스클럽이 다른 모임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방과 후 공립학교에서 모일 수 있으며, 단지 기독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학생 단체의 방과 후 모임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 지난 3월에도 리버티카운슬은 로드아일랜드의 프로비던스 교육구가 약 2년 동안 굿뉴스클럽의 모임을 금지하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프로비던스 교육구는 7월 굿뉴스클럽이 교육구 내 다른 비종교 단체들과 동등하며, 동일한 조건으로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명령에 동의했다. 강혜진 기자

쿠바, 쇠망치 · 불도저 · 감옥으로도 막을 수 없는 복음



당국자들이 보낸 철거반원들에 의해 교회 건물이 지붕만 남고 다 파괴됐지만, 월터 피스 목사의 교회 성도들은 계속 그곳에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눴다.

쿠바에서는 정부 당국이 경고도 없이 교회를 급습하는 경우가 많다. 전 세계 펍박받는 기독교인을 지원하고 그들과 동역하는 한국순교자의소리(한국 VOM)에 따르면, 2020년 3월 10일 오전 9시경 쇠망치를 든 남성들이 무리를 지어 데이비드 목사의 교회에 나타났다. 데이비드 목사는 “그들은 교회 건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허물려고 했다. 10kg이 넘는 쇠망치로 교회 건물을 부수기 시작했다. 일부러 교회가 문을 닫은 시간에 맞춰 온 것이었다. 자신들이 모든 걸 파괴하는 데 방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시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린 데이비드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이 바로 현장에 달려갔고, 교회 지붕이 무너지기 직전 가까스로 철거 대원들을 막았다. 데이비드 목사는 한국VOM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모두가 느꼈던 슬픔을 상상할 수 있는가? 수 년 동안 희생한 끝에 지을 수 있었던 그 소박한 교회가 역을 하게 허물어져 버렸다”며 안타까워했다. 한국VOM에 따르면, 수십 년 전 쿠바 혁명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Fidel Castro)는 무신론 공산주의 정부를 수립하고 쿠

바섬에서 종교를 몰아내겠다고 맹세했다. 그러나 쿠바 교회 지도자들에 따르면, 그와 정반대되는 일이 일어났다. 한 교회 지도자는 “카스트로가 그렇게 말한 지 6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쿠바에는 기독교인들이 있다. 쿠바의 수많은 학교와 비밀 감옥과 집단, 그리고 모든 지방 자치 당국에도 기독교인들이 있다. 동서남북, 쿠바 어디에나 복음이 가득 차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쿠바에서 복음이 점점 더 퍼져가면서, 기독교를 겨냥한 정부의 감시와 감독도 날로 심해지고 있다. 한국VOM 현숙 폴리 대표는 “2021년, 17년간 함께 예배를 드려온 파우스티노(Faustino) 목사와 교인 100명 역시 데이비드 목사 교회가 겪었던 것과 같은 탄압에 직면했다”며 “비록 건물은 그렇게 파괴됐지만, 교회 성도들은 정부가 결정을 바꿔 주길 바라면서 교회 건물이 있던 자리에 임시 지붕을 세우고 그 아래서 매일 모임을 지속했다. 공안 경찰들이 매일같이 기독교인들과 대립각을 세우며 그 자리를 떠나라고 압박했지만, 교회 성도들은 식량이 부족해 쌀겨로 겨우 연명하면서 신실함을 잃지 않았다”고 전했다. 강혜진 기자

북미개혁교회, 재정 문제로 65년 만에 본부 매각 결정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에 위치한 북미개혁교단(CRCNA) 교단 본부 건물. 2023년 9월, 교단은 해당 본부 건물을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CRCNA 커뮤니케이션

북미개혁교회(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 이하 CRCNA)가 재정 부족으로 60년 이상 유지해 온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에 있는 본부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CRCNA의 사역 이사회는 6일 성명을 통해 본부 건물을 매각하기로 투표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사역 운영 책임자인 덴 데캄(Dan DeKam)은 CRCNA가 이 부지를 본부로 사용한 65년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데캄은 또한 “건물의 인프라가 노후화되고,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재정적으로 지탱하기 힘들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팬데믹으로 인해 직원들은 다양한 업무 방식을 채택해야 했고, 사무 업무의 미래가 완전히 명확하지는 않지만, 직원들의 건강과 조직의 이익을 위해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제 새로운 형태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CRCNA는 올가을에 28번가 1700번지의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은 뒤, 다른 위치에 있는 건물을 찾고 있다.

데캄은 현재 본부 건물이 “너무 크고 미래에 대한 유연성이 부족하여, 다른 누군가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기존 부지의 가치를 활용하여 이전하면, 현재와는 다른 위치 또는 연결된 단체와 더

가까운 곳으로 가서 공유 공간과 자원을 더욱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CRCNA 사무총장인 재커리 킹(Zachary King) 목사는 “현재 건물은 과거의 중앙집권적이고, 노동 집약적인 사역 모델을 위해 건설되었다”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에 따라 미국, 캐나다 및 전 세계 교회들을 섬기고 지원하기 위해 더 작고, 더 분산되고, 유연한 사역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했다.

CRCNA는 네덜란드 개혁교회에 뿌리를 둔 소규모 칼뱅주의 교파로, 2022년 기준으로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 1053개의 회원 교회와 20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CRCNA는 동성애(LGBT) 문제에 대한 성경적 입장을 바꿀 것인지에 대한 논쟁에 휘말렸다. 이 교단은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합으로 정의하며, 독신이 아닌 동성애 성직자에 대한 안수를 허용하지 않는다.

최근 본부를 매각하기로 결정한 기독교 교단은 CRCNA뿐만이 아니다. 2021년 9월에는 신학적으로 진보적인 ‘미국 연합 그리스도의 교회(United Church of Christ, 이하 UCC)’가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위치한 9층짜리 12만 스퀘어 피트(약 1만1148평) 규모의 본부 사무실을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김유진 기자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4가지 방법”

하베스트크리스천펠로우십(Harvest Christian Fellowship) 그렉 로리(Greg Laurie) 목사는 최근 설교에서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의 신자”라며 “휴거 전 세상이 더욱 악화될 때, 말세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했다.

로리 목사는 여러 주간 예수님의 재림, 휴거, 7년 환란 등 마지막 때를 주제로 설교했으며, 이번 설교는 그 마지막이었다.

그는 먼저 성경이 주기적으로 마지막 때를 ‘세계적인 홍수가 발생하기 전 창세기의 노아 시대’와 비교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첫째로 그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인용해 “노아가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하여 경고하심을 받았다”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비밀을 계시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기독교인들은 세상이 모르는 것들을 알고 있다. 오늘날 문화에 속한 사람들은 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정부가 왜 통제권을 확대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왜 그토록 타락하고 끔찍한 일을 하는지 모른다. 왜 문화가 무너지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어린 기독교인조차도 현재 세상의 일부 위대한 지성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신자들은 ‘사람은 악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며, 심판이 이 땅에 임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둘째로 히브리서 11장 7절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언급한 로리 목사는 “노아는 하나님을 크게 경외했다. 우리도 그런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다. 우리는 결국 승리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있

다”고 했다. 셋째로 그는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들어 “아무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을 때에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분과 화해를 이루는 것, 그분과 화목하는 것이다. 그분보다 앞서거나 뒤처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에 맞춰 나오라.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계속 기억하라. 주님께서 움직이실 때 당신도 함께 움직이기를 원한다.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로리 목사는 “노아는 하나님의 증인이었다. 비록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더라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노아가 많은 사람에게 다가갔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어쩌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다가갈 수 있다. 어쩌면 당신의 자녀일 수도 있고 손주일 수 있다. 그러나 노아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다가갔다”고 했다.

그는 “하나님의 눈에는 지구상에서의 사역이 얼마나 크거나 작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분은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성공한 종아’라고 말씀하지 않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신이 큰 교회의 목사이든지 작은 교회의 목사이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진실함이다. 그분께서 당신에게 부르신 일이 무엇이든, 그분은 당신이 충실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고 신실함이다. 우리는 성공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고 했다. 또 지금의 이스라엘의 국가와 이것이 마지막 때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초점을 맞추면서 “어느 시점에서 이스라엘이 미국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더 필요로 할 것”이라고 했다. 김유진 기자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2부)오전 11:00
금요성경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오명찬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곽덕근 담임목사

벨리세로 OC제물 최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성경회 오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회 오후 1:00
금요성경회 저녁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토 오전 6:00
193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1, (818) 363-8887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최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콜라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hyun.org

국윤권 담임목사

사우스베이, 오렌지카운티 지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Redeeming Grace(EM)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영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326-0300, http://rpcsc.com

이항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B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 532-0191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대홍장로교회
파송기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김정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서보천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 787-7766 / www.gwctorrance.com

김경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이중용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K9성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침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www.torrancegcc.org

김유준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 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 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고창현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PC(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한국학교(토요일) 오전 9:00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 402-2919 www.cmchome.org

방상용 담임목사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기든구국재단: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이우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정예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유치부 오전 9:30, 11:30
한어(한/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토)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6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백정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

주혁로 담임목사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EM) 주일 11:00am (매일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안창훈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후 11:00

다우니제일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지영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아침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서사 오전 9:30(금)
청년기도회 오전 9:00(목)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umc.org

림혁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15 성령강림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부인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김한요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9대학청년부 오후 2:3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박신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일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등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필일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근반은교회 세계선교를 이루리겠다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한기홍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breadhoon@hanmail.net

박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8 S Vermont Ave #214, Harbor City, CA 90710
T. (310) 905-2228 / newchurchdtdla.com

최순환 담임목사

■ 강석진 목사의 북한교회사 이야기

조선 기독교도 연맹을 통한 김일성 정권 수립

소련의 스탈린은 일본이 미국에게 원자폭탄을 맞음으로 일본의 패전이 확실해 지자 선전 포고를 하였고 미국에 이어 소련에도 항복을 하게 되었다. 소련은 이북 지역의 일본군 무장 해제를 목적으로 이북 전역을 점령하였다. 그후 9월에는 38선 분계선을 중심으로 일체의 교통과 통신과 왕래를 완전히 차단함으로써 사실상 남과 북이 분단 상태로 들어가게 되었다.

소련의 군정 총 책임자인 평양주둔 정치 사령관 레베데프 소장은 김일성을 북한의 통수권자로 세우기 위해 국민 선거를 통해 인민 대표를 뽑아 인민위원회를 만들고 정부 내각을 구성해야 했는데, 김일성은 이북에서는 지지 기반이 전혀 없고 김성주라는 본명을 갖은 그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랐기에 소련 군정에서는 일제 강점기의 유명한 독립운동가인 김일성으로 둔갑시킨 것이었고 그를 내세운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원래 김일성은 독립 운동 중에 사망하였고 그 사실을 몰랐던 대중들은 김일성이 환국하여 환영대회를 한다고 하자 평양 광장에 나갔지만,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이 김일성이라고 소개하는 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아해 하였다.

평양에 돌아온 김일성은 정권 수립을 위해 지지 기반이 필요하였기에 그 지지층을 만들어내야 했다. 소련 군정은 교회 세력을 이용하기 위해 그 당시 이북 지방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조만식 장로와 기독교 지도자들을 앞장 세우고 이북 교회의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제도화하기 위해 1946년 11월 28일에 '북조선기독교도연맹'을 창단하였다. 김일성의 외가 친척인 강양욱 목사를 그 어용 기독교 단체의 대표로 세웠으며 전국의 영향력 있는 목사와 천주교의 신부들을 찾아다녔다. 그는 기독교연맹에 가입과 김일성 정권을 지지해 줄 것을 회유하며 때로는 협박하면서 많은 지지층을 확보하였다. 여기에 적극 가입하고 지지한 목사들 중에는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인사들도 적지 않았다.

강양욱 목사는 1948년 9월 1일까지 8만 5천명을 '조선기독교도연맹'에 가입시켰다. 이 당시 이북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약 20만 명이었으므로 대단히 많은 기독교인



강석진 목사 '북한교회사' 저자

들이 공산당 정부 수립에 직간접적으로 지지를 한 것이었다.

1949년 봄, 강양욱 목사는 김익두 목사와 김응순 목사를 기독교도 연맹 확장에 심본 활용하였다. 그 당시 일제 말기 조선예수교장로회의 총장이었던 김응순 목사는 교회를 살리는 길은 조선기독교도연맹에 가입하는 길 밖에 없다고 하면서 친근한 목사들을 찾아다니며 유인했고 협박까지 해가면서 이를 실행하였다. 실제로 가입하지 않은 이유택, 문경균 목사와 평북정주의 최택규 목사, 선천의 여러 목사들을 투옥시켰다. 평양신학교 교장인 김인준 목사는 정치보위부에 연행되어 고문을 받다가 세상을 떠났다.

김익두 목사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부흥사로 전국을 다니며 일제 강점기에 조선의 많은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인도한 목사였는데, 그도 처음에 현혹되어 그 연맹에 가입하였으나 후에 김일성을 직접 만나 본 후에는 그의 정체를 알고 "공산주의는 비단 보에 쌓여 있는 뽕이다"라며 그 허구와 모순성을 비판하였다. 김익두 목사는 6.25전쟁 시에 국군이 38선을 돌파하여 북한할 때에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그를 총살함으로 순교를 당하였다.

북한 지역의 공산화 과정에 1948년 9월9일에 김일성 정권 수립에 협조를 하고 참여한 교회 지도자들과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10여 년 전인 1938년의 조선예수교장로회 27차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한 배도 행위와 같이 '제2의 신사참배'를 다시 범한 것이었다. 그로 인해 결국 2년 후에는 남과 북을 피로 물들인 동족상잔의 6.25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를 범함으로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고 두 왕국이 앗수르와 바벨론제국에 의해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는 역사와도 같은 것이었다.

기독교 고전(1) 개괄 소개

'기독교 인문학을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받는다. 기독교 인문학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질문은 갖는다. 정답은 모르겠다. 그러나 다시 시작한다면 나는 기독교 고전을 먼저 살펴보고 싶다.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 고전은 속사도 교부(Apostolic Fathers)들부터 8세기 경 교부들의 작품들이, 이들 중의 일부는 신약성경에 포함될 뻔한 책도 있다.

기독교 고전연구는 천주교에서 활발하다. 기독교(개신교)에서는 관심도 부족하고 전공자도 별로 없다. 기독교 고전은 초대 교회의 영성과 상황을 담고 있다. 기독교 고전은 무서운 박해 현장의 실존적 삶에서 실천되고 검증된 삶이 담긴 글들이다.

특히 2세기 혹은 3세기 글들로 성경에 포함될 뻔한 문서는 아름다운 영감이 담겨 있다. 열두 제자와 사도바울에게서 직접 배운 속사도 교부들 교훈은 초기 기독교 신앙과 삶 그리고 교회가 직면했던 도전들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제공한다. 기독교 고전의 개괄적인 안내를 한다.

첫째, 클레멘스의 제1 서신. 이 서신은 로마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이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문서 중에 신약성서 다음으로 오래된 기독교 문서다. 주후 96년경에 기록되어 한동안 성경의 한 부분으로 인정될 만큼 중요하게 취급받았다. 이 클레멘스의 제1 서신은 클레멘스라는 이름을 가진 특정 인물이 기록한 것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분열을 다룬다.

둘째, 이그나티우스의 서신들. 안디옥 교회 감독 이그나티우스는 베드로의 후계자로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다. 이그나티우스는 초대 교회뿐 아니라 온 교회사를 통하여 매우 귀중한 신앙의 증언을 남겼다. 기록에 의하면 그는 베드로와 바울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고 사도 요한의 직제자였다. 이그나티우스는 그리스도를 주(主)로 선전했다는 이유로 사형선고를 받고 안디옥에서 불태워 로마로 압송되었다. 그는 로마 가면서 편지를 보냈다.

이그나티우스가 남긴 서신은 모두 7개다. 6개의 서신은 교회들이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데, 6개 서신의 수신 교회가 에베소, 막네시아, 트랄레스, 로마, 필라델피아, 그리고 서머나 교회다. 1개는 서머나 교회 폴리갑 감독에게 보내는 서신이다. 편지에서 밝히는 그의 소원대로 그는 로마에서 맹수형을 받아 순교한다. 그의 순교는 당시 잘 알려진 사실이었다. 이그나티우스의 순교 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폴리갑 감독에게 이그나티우스의 편지들을 써서 보내 줄 것을 요청했는데, 그 후에 그 편지들이 급속하게 보급되었다고 한다.

셋째, 폴리갑 감독의 서신들과 순교록.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은 요한의 제자로 알려진 다. 폴리갑은 젊었을 때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고 신자가 되었다. 그는 20대에 서머나 교회 감독이 되었고, 86세에 순교했다.

폴리갑은 당대에 존경받는 지도자였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감독의 지도자였다. 폴리갑은 훌륭한 제자들을 두었는데 이레네우스와 파피아스다. 폴리갑은 여러 교회와 여러 형제에게 편지를 보냈다. 현재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만 남아 있다. 빌립보에 편지는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울 서신과 비슷한 형태와 내용을 담고 있다. 폴리갑의 순교를 목격한 사람들이 프리기아 지방의 공동체에 보낸 편지다. 이 문서는 기독교 역사의 첫 순교록이요 순교의 영광에 성도들이 동참하기를 권면하는 글이다.

넷째, 바나바의 서신. AD70년 이후에서 140년까지 사이에, 이방인 그리스도 신자 한 사람이 기록한 문서다. 사도 바나바의 이름이 붙어 있어서 높이 평가되었지만, 바울의 동역자 바나바의 편지라고는 볼 수 없다. 내용은 편지라기보다는 설교나 신학 논문에 가까우며, 2~17장에서는 구약을 인용해서 유대인의 계시 이해를 비판하고, 18~20장에서는 '빛의 길'과 '어둠의 길'의 두 가지 길이라는 형태로 도덕적 권면이 있다.

바나바 서신은 당시에 회람 문서였다. 종합론적인 메시지가 담긴 이 서신은 1세기 후반과 2세기 초반에서 권위 있는 본문으로 널리 읽혔다. 이 시기의 교회는 선과 악의 최종 싸움이 무반비 상태에 이르렀으며 최종 판단이 가까웠다고 생각했고 바나바 서신서는 이런 생각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다섯째, 헤르마스의 목자. '헤르마스의 목자'의 저자는 정확하지 않다. 헤르마스의 '목자'는 교부들이 정경으로 받아들였다. 헤르마스는 노예에서 해방된 상인이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이 작품은 5편의 환상, 12편의 계명, 10편의 비유로 구성되어 있다. '헤르마스의 목자'는 개신교 특히 한국 교회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고대 교회에서는 거의 신약성경처럼 여겨지는 중요한 신앙 문헌으로 유통되었다.

헤르마스의 목자는 기독교 성경의 정경이 확정될 때 거의 신약성경에 포함될 뻔했다. 2세기와 3세기의 여러 문헌에서는 헤르마스의 목자를 거의 정경으로 인정했다. 또 리옹의 이레나이우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와 오리겐 등도 헤르마스의 목자를 성경으로 인정했다. 헤르마스의 목자는 성경에 포함되지 못했지만, 이 책은 로마 제국의 여러 지역에서 후기 사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목적인 책이다.

여섯째 사도들의 가르침인 디다케. 디다케는 성경 밖의 문서로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서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정리한 문서인 디다케는 초대교회의 신앙과 신학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다. "12사도의 교훈"이라고 불리는 디다케는 초대교회 예비신자 양육과 신자들의 신앙생활과 윤리규범 자료다. 이 문서는 초대 교회공동체의 수준과 지향점을 보여준다.

기독교 고전은 방대하다. 앞으로 이런 고전들을 살펴며 인문학적 소양도 쌓고, 교회의 본질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길 바란다. 특히 이런 고전들을 통하여 신앙의 야성을 키워가는 축복을 사모한다. 코로나 시대에 국가 통제에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순응하는 현대 교회를 보면서 초대교회를 생각했다. 로마의 통제에 교회가 순응했다면 기독교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2023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세계 최고의 교수진,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실용적인 사역 대비, 오프라인 수업, 미국 비자 (I-20) 발급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ABHE, 정회원, ATS, 총회원, 기독교대학(원),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71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100% 한국어
-1-20 발급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ATS, ABHE, 정회원, 온캠퍼스 수업, CANVAS 기반 온라인수업, 실시간 화상수업, 온오프라인 통합 블렌디드 수업,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학자금 지원 (Col & Pell Grants)
학부 | 신학, 사역(목사), 상담(상담학), 가정상담학, 교육학, 석사 | 목회학, 목회학 석사, 상담심리학, 목회학 석사(상담심리), 상담심리학, 신교육, 광물가속치료학, 간호공학, English M.Div., 박사 | 신학박사, 신학철학박사
주소: 15605 Carner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입학문의: (562) 926-1023, ext. 300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증,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 (626) 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li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i.aurahelio@gmail.com
전화: 1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MATS 선교학 석사, M.Div 목회학석사, Th.M 신학석사,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 (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ia.edu

세상과 그리스도를 잇는 We Bridge 교회

Grid of church advertisements. Each card includes: Pastor Name, Church Name, Address, Phone Number, and Service Times. Churches listed include Acts Global Church, Angel's Church, Connecting Mission Baptist Church, His Presbyterian Church, LA사랑의 동산교회, LA하나교회, Metanoia Church of Southbay, New Start Community Church, Only One Church, The Well Church, 남가주 어노인팅교회, In Christ Christian Church, 남가주늘사랑교회, 남가주예수사랑교회, 남가주은혜선교교회, 늘워장로교회, 늘새론교회, 더섬기는교회, 랜초한인교회, 로고스라이프교회, 리뉴얼새힘교회, 말씀위의교회, 방주교회, 버몬한인교회, 베이커스필드아름다운교회, 브림장로교회, 생명과사랑의교회, 생명의길교회, 선민교회, 섬김의교회, 성령과함께일하는교회, 성암교회, 예심교회, 원웨이침례교회, 은혜가샘솟는교회, 은혜샘교회, 주님의숲교회, 주백성교회, 초대교회, 카마리오열방교회, 카마리오제일장로교회, 커넥션교회, 크레센타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 크로스교회, 하늘기쁨의교회, 함께하는 주은혜교회, Global United Church, 굿프렌즈교회.

강준민 칼럼

한계 속에 감춰두신 하나님의 지혜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우리는 한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포스트모던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한계를 무너뜨리는 것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한계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한계는 경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마다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 경계를 침범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은 비극을 낳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멈추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평화를 깨뜨립니다. 전쟁은 수많은 생명을 빼앗아 갑니다. 아름다운 나라를 황폐케 만듭니다. 수많은 난민을 낳습니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바다에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바다는 썰물과 밀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에 경계를 정해 주신 까닭에 바닷물이 경계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쓰나미와 큰 태풍

과 큰 폭풍이 아니면, 바닷물은 경계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경계는 생명선입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출 19:12). 한계는 난간과 같습니다. 절벽 난간은 위험합니다. 그 난간을 잘 지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한계를 잘 지키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길입니다. 가정이라는 한계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가정의 선을 지킬 때 가정은 행복해집니다. 가정이라는 선을 넘어 외도하기 시작하면 가정은 어려워집니다. 진정한 행복은 한계 속에 있습니다. 진정한 안전은 한계 속에 있습니다. 기차는 철로를 따라 움직일 때 가장 안전합니다. 기차가 자신의 한계를 무시하고 철로를 이탈할 때 기차는 전복되고 맙니다. 기차가 전복될 때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위협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기차는 더 이상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의 문제는 자리를 잘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유 1:6). 지도자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엄마와 아빠가 가정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인이 전쟁터에서 자

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는 병원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수술실에서 수술의가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교사는 학교에서 교사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성도는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교회에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편한 한계 속에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한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스스로 인간의 몸이라는 한계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아무도 원치 않는 십자가의 한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사람들의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지 사흘 만에 부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습니다(히 2:9).

한계는 걸림돌이 아니라 축복의 디딤돌입니다. 에슐리 헤일스는 “우리의 한계를 벗진 삶의 걸림돌이 아니라 멋진 삶에 들어가는 문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에슐리 헤일스, 『작아서 아름다움』, IVP, 59쪽). 한계는 좁은 문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문이 생명의 문입니다. 축복의 문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문입니다.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면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일들이 전개됩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는 1967년 7월 어느 여름날, 체사피크 만에서 수심이 얇은 것을 파악하지 못한 채 다이빙을 했습니다. 목이 부러져 어깨 아래로 전신이 마비되는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고 이후로 휠체어라는 한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휠체어라는 한계를 벗어나서 걸을 수 있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 치유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휠체어에 머물게 하심으로 더욱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만드셨습니다. 그녀는 휠체어를 통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녀는 지금까지 40여 권 이상의 책을 썼습니다. 다수의 음반을 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장애인들을 옹호하고 지원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는 연약함의 한계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연약함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한계 때문에 한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한계를 끌어안으십시오. 지켜야 할 경계와 위치와 자리를 잘 지키십시오. 한계를 통해 더욱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민중기 칼럼

기독교적 인문학과 교양의 황혼에서



민중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원로
KCMUSA이사장

뉴욕에 소재하는 복음주의적 학교인 “킹즈 칼리지”(The King’s College)가 재정적인 이유로 문을 닫고, 이번 가을학기부터 학생을 받을 수 없다는 우울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학교는 인문학을 가르쳐 학생을 주변의 우수한 대학원이나 전문대학원으로 보내던 요람입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이나 극좌파의 해체주의적 진영에 대하여, 이러한 학교는 전통적인 자유와 평등, 정의, 용서와 자비와 같은 사상의 기초를 기독교적 인문학의 전통 속에서 찾아 대안을 제공하던 기관입니다.

킹즈 칼리지의 중단을 달리 표현하면, 일리노이의 위튼이나, 애틀란타의 에모리, 조지아의 웨슬리안대, 미시건의 켈빈대와 같은 학교가 문을 닫았다는 말입니다. 남가주로 말하면, 우리가 자녀들을 안심하고 보내는, 바울라와 페퍼다인 대학과 같은 기독교 학교, 아주사나 웨스트몬트와 같은 인문학을 가르치는 복음적 학교들이 없어진다는 소식과 다름이 없습니다.

뉴욕이 진보 좌파(progressive Left)와 신우파(New Religious Right)의 격전장이 되면서, 오랫동안 자유민주주의의 견고한 기반이 되었던 지성적 보루가 망각 혹은 유실되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인문학, 인문과학, 혹은 인문사회과학의 교양이 중요한 이유는 이 분야가 인간을 폭넓게 이해하려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학의 분야에서도 “신학적 인간학”을 배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에 대한 가르침, “하나님의 형상론”이나, 인간 타락 이후의 “인죄론”(hamartiology)을 다룹니다. 그러나 중세가 무너지면서, 대두된 르네상스의 영향은 수많은 신학자

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스콜라주의적 신학 이론을 넘어, 현실적인 인간 상황을 새롭게 연구하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세 말, 언어, 문학, 철학과 역사에 대한 관심 및 그리스·로마의 문화와 고전에 대한 재발견은 새로운 지식의 세계를 열었습니다. 회화, 건축, 조각은 이제 신앙의 대상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를 표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4-16세기의 인본주의(humanism)와 이후 17-18세기의 계몽주의라는 반기독교적 사상의 대두가 있었지만, 16-17세기의 종교개혁을 경유한 기독교는 인본주의적 지식을 습득하며 새로운 지식사회에 대응하는 사상적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신학적인 계시의 기초를 가지고 인문학적인 지식을 사용하여 당시에 필요한 지성적인 토대를 놓은 사람들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전통은 이미 어거스틴의 플라톤 사용, 또한 아퀴나스의 아리스토텔레스적 유산의 이용을 통해 예시되었습니다. 16세기 법학도였던 루터와 켈빈은 그들이 가진

법학이라는 지식의 틀을 사용하여 기독교를 체계적으로 재정리하여 지성 사회에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고립된 스콜라주의의 섬이 아니라, 인간학이라는 지식을 교회가 당시의 시대와 소통하는 교양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교회의 공통언어는 성경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우리 자녀는 세상 속의 공통언어를 익혀 소통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대학의 공통언어는 인문학, 혹은 인간학입니다. 자연과학과 사회과학과 응용과학의 수많은 담론 속에서, 이것을 비판하고 교정하고 위치를 정해주는 세상의 공용어는 인문학적 교양입니다. 인문학적 교양이 중요한 이유는 이 시대에 그곳에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사로잡는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대학의 패러다임은 반기독교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학문의 영역이 다시 우리의 선교지가 된 지금, 총명한 우리 자녀들을 지성 사회의 사무엘과 다윗과 에스터와 다니엘과 같은 파수꾼으로 파송할 때가 벌써 깊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조선일보 가판대에서 기독교일보 신문 보실 수 있습니다.

CHRISTIAN BUSINESS 크리스천 비즈니스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신가요?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슈베르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기독교샵

쇼핑이 기부가 된다!
기독교샵은 판매수익의 10%를 워브리지를 통해 어려운 교회를 돕습니다.

www.Kidokshop.com

다양한 컨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media.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el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영양이 정성이 가득... 미리 주문해 주세요!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진유철 칼럼

브라질 집회 선교를 다녀와서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8월 20일 주일 저녁에 출발하여 9월1일 금요일 오전까지 약 13일간 콜롬비아 보고타를 거쳐 브라질 아마존 주의 따빠우아, 마나우스, 빠라주의 빠라고미나스, 돔 엘리세우, 울리아노폴리스, 임페라트리스, 그리고 에스빠리푸 산토 주의 빅토리아와 세하까지 여러 교회들을 순회하는 브라질집회선교를 하나

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비행기만 11번을 갈아타고 자동차로도 수백km를 계속 이동하는 쉽지 않은 일정이었지만 교회의 중보기도를 힘입어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육로길이라고는 없는 아마존의 울창한 밀림 위를 9명이 타는 단발 프로펠러 비행기로 날아가고, 생전 처음 먹어보는 음식들을 대하고, 무덤고 신비하기까지 한 아마존의 강을 배로 달릴 때는 '또다시 이런 곳을 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벌써 그림기까지 한 선교여행이 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친히 인도, 동행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저희들을 환영해주었고, 열정적인 예배와 가식과 체면이 아닌 진심어린 사랑의 섬김은 감동이었습니다. 온통 밀림으로 덮인 곳에 덩그런 작은 별판 같은 활주로에서 4시간이나 지체된 우리를 무더위를 견디며 기다렸다가 열렬히 환영해준 따빠우아

성도들, 교회에 도착한 순간부터 떠날 때까지 활짝 웃는 얼굴로 기쁨의 환호성을 그치지 않았던 빠라고미나스 성도들, 그리고 3대의 차량으로 4시간이 넘는 거리를 마다않고 공항까지 마중 나와 4일 동안 수백km를 기쁨으로 운전해준 섬김과 밤12시가 다 되어 도착했는데도 수십 명이 기타와 찬송으로 환영해주고 혼신의 힘을 다해 가정에서 준비한 식사들로 감동을 준 울리아노폴리스 성도들, 그리고 선교 둘째주간 저희가 가는 지역의 일기예보는 계속 비가 오는 겨울날씨였는데, 희한하게도 저희들이 가면 비가 그치고 해가 나는 기적이 일어나서 사명을 위한 행진에는 날씨가 책임져주시는 하나님을 마음 가득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약38년 전 남미에서 가장 작은 자로, 가장 작은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했지만, 예수님의 생명을 자라고 풍성히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꼭 10년 전 함께 방문한 최웅진

장로님 부부가 빅토리아 위성도시 '세하'에 구입해준 땅에 지금은 2층 성전이 지어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예배드리고 있음도 보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콜롬비아의 김주영 선교사님은 보고타 교회당 구입을 위해, 브라질의 김용철 선교사님은 마나우스에 아마존 선교의 전초기지를 만들기 위해 기도하고 계신데,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예수님은 반드시 이루어주시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Not I'가 되어야만 'But Christ!'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겠지만, 내 수준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은 분명히 모든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대적보다 크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세상 쾌락이 아닌 예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므로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됨을 증거 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살람!

구봉주 칼럼

태풍이 주는 교훈



구 봉 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지난 달에 뜻 밖의 무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힐러리라 이름이 붙은 태풍이 남가주를 강타할 것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일주일 넘게 미디어는 큰 홍수가 날 것처럼,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코스코와 월마트는 주요 생필품과 식품이 동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별로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올 초처럼, 몇 날 몇 일 몇 주 동안 계속 비가 내린 정도, 낮은 지대가 물에 잠기는 정도일 것이라고 예상하며 낙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강타한다면 주일 새벽에 비는 오지 않았고, 아침이 되어서야 조금씩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어느 비가 많이 온 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멕시코에서 캘리포니아로 올라오는 과정 중에 태풍의 기세가 많이 약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성도님들께서 많이 출석하지 못하신 것을 보고 염려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린 점이

나,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팬데믹 이후로 많은 크리스천들의 믿음이 많이 위축되고 연약해지지 않았나"하는 염려가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살아보신 이민 1세대들은 한국의 날씨를 잘 알고 계십니다. 한국은 매년 여름이 되면, 태풍을 맞이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매년, 태풍이 올 때마다 쓰던 우산이 뒤집어지고, 비를 쫓따 맞으면서, 거리를 걸어 다녔고, 심지어 학교도 가고, 교회도 갔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태풍들은 결코 가벼운 태풍이 아니었습니다. 물난리가 나고, 시골에 농지와 밭은 물에 잠겨 버렸고, 수도 없이 많은 다리가 붕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해야 할 일을 멈추거나, 교회 출석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안전불감증이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결코 안전불감증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생계를 위해서는 태풍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태풍 정도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일을 포기하는 일은 우습다고 여기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냥, 당시 크리스천들을 포함한 모든 일반 사람들은 태풍 정도로 해야 하는 일은 멈추어서는 안된다는 강인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큰 태풍이 와도, 누구 하나 교회에 가다가 사고가 났거나 인명 피해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적어도 제 주위에서는 한 번도 듣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피해를 당한 경우가 있었겠지만요.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와 달

랐습니다.어쩌면, 성도님들 가운데, "그것이 과연 믿음입니까? 올바른 믿음입니까?" 물으신다면, 저는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담대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일이라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지키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 전에 어떤 장로님 권사님 내외분께서 주일날 새벽기도회를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 전에는 주일에도 새벽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누구하나 "왜 하필 주일까지 새벽기도회 가서, 그런 사고를 당했는지? 새벽기도회만 안 갔어도 죽지 않았을 텐데"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마지막까지 새벽기도로 섬기시다가 돌아가신 점을 모범적 신앙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실교 때마다 예화로 자주 소개되는 짐 엘리엇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최고의 명문대를 나온 재원이었습니다. 정치인, 학술인, 경제인 되고 싶으면 얼마든지 유명인사가 될 수 있는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나, 20대에 선교사의 소명을 받고, 예과도르에 미전도 종족, 부족인들을 선교하기 위해, 수년간 준비하고, 막상 배를 타고 그 땅에 도착했을 때, 배에서 내리자마자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언론인들이 그의 죽음을 애통하면서, 엘리엇의 선택에 대해 잘못된 선택이었고, 미국의 손해라고 대서특필하였습니다. 이에 그의 아내 엘리자벳 엘리엇은 그러한 언론의 기사에 항변을 했습니

다. "그런말 하지 마세요. 내 남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목숨을 바쳤고, 그 일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자벳은 간호사가 되어, 자녀들을 데리고, 예과도르로 떠났고, 그녀는 그 땅에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고, 심지어 당시 남편을 찔른 부족민까지 용서하고, 전도를 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가치를 위해, 건강, 목숨을 아깝지 않게 여기는 일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어리석고 지혜 없어 보이고,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십니다. 선교지에서 영양제 챙겨 드시지 못해서, 큰 병으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일찍 치료를 했으면, 금새 나올 병이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분들을 무지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장 지혜롭고 올바른 결단을 한 믿음의 용사였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상하기로 앞으로 또 다른 팬데믹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가 되면, 크리스천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번 보다 더 교회로 모이기를 기피하지 않을까요? 믿는 자의 믿음은 더욱 약해지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더욱 담대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영적 가치를 위해서 생명도 각오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종말론적 신앙이고,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치기보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적 강인함을 본받아야 합니다.

현대인의 필수품

Z-UP 전자동



전동거꾸리

통증을 유발하는 척추디스크는 반듯하게 제자리로 가라!

하루 5분

으로

허리 통증, 손발 저림 통증, 통증 해결!

영국의 뉴캐슬 대학에서 임상실험으로 허리 수술을 예정했던 환자의 80% 이상이 척추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후 유럽에서는 척추질환 치료 DP수술 대체 치료로 Z-UP 전자동 전동거꾸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신형 전자동 전동거꾸리 Z-UP

오히용내과
HEEY OH, D.B. MEDICAL CLIN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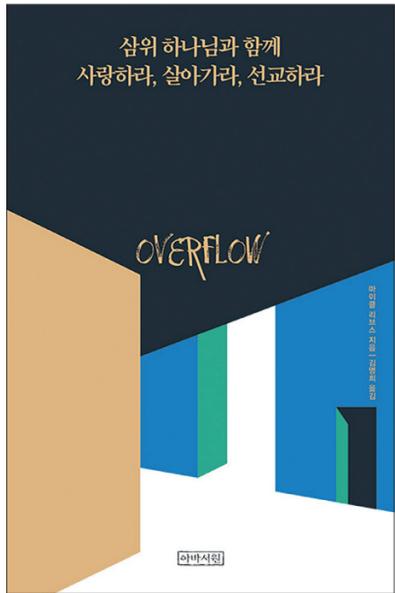
다이아몬드바 무료체험 오히용내과 내

20627 GOLDEN SPRINGS DR. SUITE #2 - D & E DIAMOND BAR, CA 91789
Phone : 909-480-0099

Z-UP전동거꾸리 LOLC Inc. | Tel. (213)703-0240 (웨스턴길, 1가와 2가 사이)
For the Spirit & Body 147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선교의 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교에 주시는 영감... 사랑·생명·기쁨



삼위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라, 살아가라, 선교하라

마이클 리브스 | 김명희 역 | 아바서원 | 144쪽 | 11,000원

그리스도인이 성부, 성자, 성령을 사랑으로 찬양하여 신성한 인격으로 볼 때, 선교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근본적으로 바뀐다

그분을 알기 위해 애쓰다면, 죄책감과 고역에서 벗어나 그분의 선교에 기쁘게 함께하게 될 것. 선교는 당신이 수행해야 하는 과제 목록으로 시작되지 않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돼

마이클 리브스는 이제 국내에서 제법 유명한 저자가 되었다. 영국 유니언신학교 총장이자 신학 교수인 리브스는 교회사, 특별히 종교개혁 시대와 청교도 시대 관련 연구와 저술을 통해 현대 기독교인에게 기독교 정통 교리와 실천을 가르치는 탁월한 강사이자 교사이다.

책 제목인 <삼위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라, 살아가라, 선교하라>는 이 책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다루고 또한 그 진리를 바탕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말하는 책이라는 것을 예상하게 한다. 원제와 책 내용을 바탕으로 말하면 이 책은 '선교'를 말하기 위한 책이다. 하나님이 단일 신이 아니라 세

위격으로 계신 것이 선교에 어떤 영감을 주는지 제시하는 책이다(원서 부제는 그래서 'Trinity inspires our mission'이다. '삼위일체가 우리 선교(사명)에 영감을 준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원서의 제목은 《Overflow》이다.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있는 영원하고도 풍성한 사랑과 생명과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 흘러 이웃에게 미치는 것이 곧 선교라는 것을 의미한다. 2019년 미국 무디 성경학교에서 선교대회가 있었는데, 마이클 리브스는 세 번의 강연을 부탁받았다. 그 내용을 정리한 책이 바로 <삼위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라, 살아가라, 선교하라>이다.

영국 사람인 리브스는 유럽 대륙의 기독교 현실에 탄식하며 그 뒤를 무섭게 따르고 있는 미국 기독교를 이끌 다음 세대 일꾼들에게 사명의 중요성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경외하는 방식을 통해 인식하기를 간구한다.

해외 선교사 파송 세계 2위 국가로 선정된 대한민국은 그러면 안전할까? 그렇지 않다. 만일 우리가 강력한 의무감이나 사명감 때문에 움직인다면 불꽃은 곧 사라지고 선교 사역은 우리가 지지 못할 짐이 되고 말 것이다.

왕성하게 선교사를 교육하고 파송하는 우리에게도 마이클 리브스의 가르침이 필요하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해 선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선교에 필요한 지혜와 동력을 발견해 오히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될 것이다.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자. 삼위일체는 너무 어렵다. 그런데도 진짜 기독교와 가짜 기독교, 정통과 이단을 가르는 핵심 교리에 항상 들어가 있고, 교회사에서 초기 몇 세기 동안 교회 전체를 뒤흔들며 피바람을 불게 한 중대한 교리이다. 비유로 설명하면 항상 본질을 훼손하고, 정통 기독교가 정립한 대로 머릿속에 겨우 정리해 둔다 해도 실생활에 적용하기엔 너무 추상적이다.

마이클 리브스는 기독교 세계관(삼위일체)에 대항하는 모든 종교와 사회 신앙의 세계관을 무신론 혹은 단일신론으로 구분한다. 다신론도 있지만 성경적인 삼위일체 개념을 갖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무신론 혹은 단일신론과 같은 적용을 낳는다.

리브스는 생생하고 탁월하게 왜 삼위일체가 아니면 안 되는지 보여준다. 특별히 제 3장 '삼위일체가 없는 메마른 땅'에서 단일신이 창조와 구원을 주도하는 신화에서 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불품없으며 그런 신이 빛은 피조물에게서 기독교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과 기쁨의 흘러넘침(overflow)을 기대하기가 원천적으로 어렵다는 극명한 사실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 한 분 하나님으로 영원히 계신다. 이 말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은 인격적하시고 관

계적이라는 말이고, 어둠으로 상징되는 거짓이나 죄가 조금도 없는 온전히 친밀하고 무한히 사랑스럽고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과 친밀감과 선이 세 위격 하나님 사이에서 풍성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넘쳐흐른다는 말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 1:26)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이자 목적이다. 고독하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다.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사랑과 선하심의 결과이다.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성령을 통해 죄인을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하나님 안으로 다시 불러들이시는 이유, 쉽게 말해 구원의 이유 역시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태초에 시작된 예정부터 영원히 영화롭게 하시는 구속 사역에 흘러넘치도록 나타내신다.

바로 이것이 선교의 동력이다. 마이클 리브스가 원래 이 책 제목을 '고역에서 기쁨으로(From Drudgery to Delight)'로 짓고 싶었던 이유가 말해주듯, 선교는 받은 명령에 순종해야만 한다는 의무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흘러넘쳐 우리에게 미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세상



뒤러의 '성 삼위일체'.

에 흘러보내는, 자연스럽게 역동적이며 생명력 넘치는 일이다. 요컨대 삼위일체를 바르게 알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롭고 아름다운 영광에 매료되는 것이 모든 선교를 꾸무고 준비하고 선교적 교회를 세우려는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요구된다.

마이클 리브스의 <삼위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라, 살아가라, 선교하라>를 통하여 모든 독자들이 선교의 필수 동력을 얻고 기쁨으로 흘러 넘치는 자들이 되기를 간구한다.

조정의
크리스찬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네 길을 의지하게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일을 빛 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인의 빛 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5,6

Commit your way to the Lord;
trust in him and he will do this:
He will make your righteous reward
shine like the dawn,
your vindication like the noonday sun.

PSALMS: 37.5,6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귀국이사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싸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저가 차량 운송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문의 1-877-580-2424 사우스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 주정부 허가: MTR-190586
samsungmoving@gmail.com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박옥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SBS <국민사형투표> (2)

흉악범죄 증가가 불러낸 사형제도, 성경적으로 정당한가?

살인 안 돼 vs 하나님 공의 실현
사형제 폐지 명분 입증된 적 없어
범죄자보다, 피해자 인권 존중을
증범죄 원초적 저항감 고취 유효
소년법 증가, 사형 부담에도 원인
드라마 인민재판식 사형은 안 돼

◆사형제 존치의 의의: 인권, 존엄성,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벌

사형 인도와 집행의 정당성 이슈는 현대 사법체계의 주요 아포리아(aporia·그리스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난제와 모순을 뜻하는 철학 용어- 편집자 주) 가운데 하나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사형의 인도 및 집행을 포기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우리 한국을 비롯해 사형제를 사실상 폐지한 국가들이 내놓는 명분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제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인간이라도 그 생명의 존엄성은 존중하자는 것, 그리고 사형제를 계속 시행해 봤자 사형 혹은 그에 비등한 형벌을 받을만한 강력범죄 건수가 두드러지게 줄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선 전자의 명분, 즉 범죄자라도 인권과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한 마디로 말해 부당한 명분이다. 범죄자가 흉악 강력범죄를 통해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할 책임을 전적으로 저버린 경우, 인간 존엄성의 우선순위는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다시 말해 범죄자와 피해자 둘 모두 존엄성이 있다면, 먼저 범죄자 측에서 서로의 존엄성을 존중할 의무를 저버렸기에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므로 피해자 인권을 무조건적으로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형제나 그에 준하는 중형(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등)은, 사법체계가 적절하게 운용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지극히 적법하고 정당한 정계의 방편이다. 사형 폐지를 옹호하는 이들이 사형제를 순전한 감정적 복수라며 폄훼하는 것과 달리, 사형제 혹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같은 중형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평등하게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에 전적으로 부합한다.

사형제 폐지의 두 번째 명분, 즉 사형제를 지속해도 흉악 강력범죄 건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겉보기에는 일리가 있어 보인다. 범죄예방 효과가 없는데 굳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단지 복수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폭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형제의 범죄예방 효과를 살피려면 단순히 강력 흉악범죄 발생 건수만을 볼 것이 아니라, 사형제가 범죄 충동을 막는 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 내막을 세부적으로 검

토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사형제가 세간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사형제의 범죄예방 효과는 아직 명확하게 입증된 바 없다. 그런데 문제는 사형제가 유의미한 수준의 범죄예방 효과를 갖지 못한다는 주장 역시 확고하게 입증된 적 없다는 점이다. 즉 사형제의 범죄예방 효과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고한 경험적 근거를 가진 정설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흉악 강력범죄를 촉발하거나 억제하는 요인에는 사형제 외에도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오로지 사형제라는 변수 하나만으로 중범죄가 효과적으로 예방되는지 판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형 집행과 강력범죄 발생 건수의 수치상 상관관계만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사형제 존치가 사회 전반에 주는 직간접적이고 실제적인 심리적 영향을 면밀하게 관찰해야 한다.

◆사형제 존치의 필요성: 하나님의 공의의 그림자인 사형제

사형이 정상적으로 집행되는 국가에서는 강력범죄에 대한 통상적 이미지가 대단히 무겁고 암울하게 각인된다. 사형제가 폐지된 곳에서는 살인 등 강력범죄가 피해자의 억울함에 결부된 공분만 불러일으키지만, 사형이나 그에 준하는 중형이 엄정하게 내려지는 곳에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지극히 절망적이고 수치스러운 형태로 삶을 마감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뇌리에 남게 된다. 이처럼 죽음에 대한 원초적 공포심을 자극하고, 여기에 더해 모든 이로부터 지탄받으며 불명예로 가득한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에 대한 극한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이것이 사형제의 부정할 수 없는 심리적 영향이다. 사형을 당할 이가 느끼고 감내해야 할 비참하고 절망적인 죽음의 방식에 대한 느낌은 중범죄를 비롯한 모든 범죄행위 자체에 대한 원초적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며, 공권력과 사회의 질서에 대한 순응의 필요성을 일깨운다.

실제로 현재 한국의 중장년층은 1997년(한국에서 사형이 마지막으로 집행된 해) 이전까지 범죄와 관련된 이런 무거운 느낌을 체감할 수 있는 사회를 살아본 경험이 있다. 반면 1990년대 태어난 젊은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공권력의 권위나 형벌체계에 대한 중압감이 훨씬 덜한 세상을 살아왔다.

2000년대 이후 소년법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그 범의 양상이 이전에 비해 훨씬 비열하고 잔혹해진 것, 그리고 이제 막 사회로 진출하는 이 젊은 세대에서 기형적인 형태의 강력범죄가 빈발하는 것에는 사형제가 주는 심리적 무게감과 부담감이 사라진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사법불신과 사적제제, 국민투표라는 소재를 엮어 흉악 강력범죄에 대한 정의구현의 의미를 묻는 드라마, <국민사형투표>. ©SBS 캡처

로 한국에서는 1995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소년법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이처럼 사형제 그 자체는 인권과 존엄성의 원칙에도 부합하고, 중범죄에 대한 근원적인 저항감을 고취시키는 데도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사형 판결 및 집행과 관련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아 있다. 바로 잘못된 수사와 재판으로 억울하게 중형을 받게 되는 이들의 문제이다.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 사형제가 정권의 부조리함과 불의에 저항하던 이들을 제거하는 방편으로 쓰인 적이 있다. 그리고 경찰 수사력이 아직 온전하지 않았던 시절,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려 사형이나 그에 준하는 중형을 받는 사례도 빈발하곤 했다.

이런 기억 때문인지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혐의가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 일부 사례에 대해 사형을 인도하거나 집행하는 것이 지극히 부당하다는 견해가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부당한 사례들이 사형제 자체의 정당성과 의의를 훼손하지는 못한다. 다만 사형 인도와 집행에 있어서 얼마나 만전을 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가령 <국민사형투표>에 묘사된 인민재판식의 사형은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적·윤리적 책임을 절감하고 있다. 현재 사형을 인도받고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들은 모두 그 혐의가 부정할 수 없이 명백하게 밝혀진 이들이다. 이런 자들에 대한 사형 집행을 무기한으로 미루고 있는 것은 사회적 공의와 효용, 양편 모두에 저해되는 처사이다.

기독교인은 기본적으로 이 사회에 엄정한 공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 죄인에 대한 용서와 사랑의 의무가 있기는 하나,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릴 만큼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중세 말 신학자 윌리엄 오컴(William of Ockham)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은 원칙적으로 무한히 자유롭게 자신의 권세를 행사하시지만(potentia dei absoluta),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그 권세를 스스로 제한해서 사용하신다(potentia dei ordinata).

이 땅의 법질서는 보다 상위의 공의, 즉 하나님의 공의를 유비하는 그림자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이 땅의 공의가 올바르게 세워져야 하나님의 계명의 절대성과 엄준함에 대한 의식을 가질 수 있다. 이 땅의 공의가 형편없이 무너진 상황에서, 보다 고차원적인 공의에 대한 감각을 갖기란 쉽지 않다. 법질서가 무너진 땅에 복음화가 막히고 교회 존속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국민사형투표>는 사형제에 결부된 공의에 대한 물음에 관심을 갖게 한다. 물론 작품의 상업성을 높이기 위해 사형 집행에 얽혀 있는 복수심과 감정적 카타르시스를 과도하게 자극한다는 점에서 문제제기의 진정성이 다소 퇴색되는 감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명백하게 죽어 마땅한 이들을 적법하게 처단하는 일이 세간에 어떤 심리적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새겨볼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작품이다.

그리고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왜 사형제가 성경적으로 정당인지 하나님의 공의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박옥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한국의 사형은 교수형으로 집행된다. ©픽사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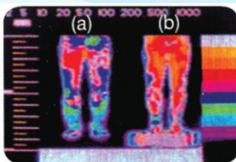
런 방식은 오히려 사형제의 본의(本意)를 훼손한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불투명하게 처리되는 요인이 있어서도 안 된다.

다행히 독재정권 종료 이후 한국 사법부는 사형을 인도하는 데 따르는 막중한 사회

피로방지 매트

70%이상 피로 감소, 혈액순환, 하지정맥류 개선, 충격흡수, 관절보호

인체공학적인 설계를 바탕으로 제작된 피로방지 매트로서 일하는 곳 바닥에 탄력적인 표면을 제공하여 서서 일하는 분들의 근육격계 질환을 현저하게 예방하고 피로로 인한 만성질환에서 벗어나게 해 드립니다.



열상상선을 이용한 피로방지 매트 비교실험 (혈액순환 정도와 근육 피로도를 비교한 그림)

E-MAT

블랙

36.5X 25 inch

~~\$176~~ **\$80** +Tax



목사님!
편안하게 피로방지매트에서 설교하세요. 서서 설교하실 때 충격흡수를 시켜 관절을 보호하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며 피로를 줄여드립니다. 바닥에 앉아 기도하실 때 기도매트로 좋습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

어머님, 아버님 미끄러지지 마세요!

미끄럼에 의한 골절과 상해로 인한 사망률이 높다는 것은 다 아시죠? 미끄럼 방지 매트로 120세까지 건강하게 사세요. 침대 옆, 화장실, 주방, 거실에 설치하면 좋습니다.

NEW SUPER SAFE MAT

녹색

36.5 X 24.5 inch

~~\$100~~ **\$50** +Tax

SUPER SAFE MAT

파랑

대 35.5 X 23.5 inch ~~\$100~~ **\$50** +Tax

소 31.5 X 15.75 inch ~~\$80~~ **\$40** +Tax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70% Tax Benefit

**2023년
대박**



**100%
Made in
USA**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56% ~ 70%

연방 ITC : 30% 이상
감각상각: 최대 80% 적용
(2023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Solar?

(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가?)

- ✓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설치 가능
- ✓ 최고 성능의 패널 사용
- ✓ Zero Down Payment
- ✓ 전기료 50~90% 절감
- ✓ EV Car 사용자 Outlet Free

Lic#854389

***** 전기세 50~90% 절감 *****

Why BTS Solar?

(왜 BTS 솔라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 ✓ 전기세 ~~30~50%~~ **50~90% 절감효과**
- ✓ **Zero Down Payment** (PPA의 경우)
- ✓ **최고 성능의 안정적인 패널**
- ✓ 모든 제품군 **최장기간 Warranty**
- ✓ 남가주 전 지역 **최단기간 설치**

• 태양광 설치 효과

태양광 설치 시 얼마나 많은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지는 첫째, 얼마나 많은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지, 둘째, 패널을 설치할 지붕의 방향과 각도가 태양광을 받기에 얼마나 적절한지 등에 달려 있습니다. 드론을 통해 현장 실사하듯 에너지 효율 체크합니다.

• 저렴한 맞춤형 파이낸스

별도의 담보도 필요없이 크레딧으로만 설치되며 가장 저렴한 Payment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설치 후 1년 동안은 100% 태양광 설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1년 후부터 Payment가 시작됩니다. Payment가 시작되어도 현재 전기료의 70~80%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안정적, 효율적 제품으로 신속 정확한 시공

한국인 팀장이 주축이 되어 고객과 소통하며, 최고의 설치 노하우로 미국 시장에서 가장 인정받고 있는 효율적인 제품만을 선별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시공합니다.

www.btssolardesign.com

TALK BTSSolar

LA: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213.500.80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714.702.0151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세요.

1. 문의 전전기세 고지서를 준비해주세요.
2. 전기세 고지서사진을 찍어서 Text Message 혹은 카톡주세요.
3. 메세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